

성산~표선간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 온평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 온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신천리 한뫼곶(동굴)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문화예술재단

성산~표선간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내
온평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목 차

I. 조사개요	9
II. 현황과 조사방법	10
1. 조사지의 구획과 시굴상황 /10	
2. 시굴방법 /10	
III. 조사내용	10
IV. 출토유물	21
V. 맺음말	27
보고서 초록	29

〈도면목차〉

-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도(축적1/5,000)(1) /11
-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도(2)) /12
- 도면 3. 가지구 A구역 Test-pit 평 · 단면도) /14
- 도면 4. 다지구 추정지석묘 평 · 단면도) /19
- 도면 5. 가-A-Tr1. 출토 유물(1~10), 지표 수습 유물(11~17)) /24
- 도면 6. 지표 수습 유물(18~20, 45~50)) /25
- 도면 7. 지표 수습 유물(48~49)) /26

〈사진목차〉

- 도판 1. 435-1번지 일대 전경(①), 조사대상지 구획작업 전경(②), 435-1번지 조사 광경-동에서(③), 435-1번지 Test-pit(1) 전경-동에서(④), 435-1번지 Test-pit(1) 적석하부 토기 출토 상태(⑤), 435-1번지 Test-pit(1) 토층 전경-남에서(⑥) /33
- 도판 2. 434-1번지 조사 광경-서에서(①), 434-1번지 Test-pit(1) 전경-서에서(②), 434-1번지 Test-pit(2) 토층 전경-남에서(③), 434-1번지 Test-pit(3) 토층 전경-남에서(④), 433-1번지 조사 광경-동에서(⑤), 433-1번지 Test-pit(1) 수혈유구 전경-동에서(⑥) /34
- 도판 3. 433-1번지 Test-pit(2) 전경-남에서(①), 433-1번지 Test-pit(3) 전경-동에서(②), 신평리 83-6번지 고인돌 광경-서에서(③), 고인돌 조사 광경-남에서(④), 고인돌 하부 구조 내 토층-북에서(⑤), 고인돌 하부 구조 조사 전경-남에서(⑥) /35
- 도판 4. 라지구 A구역 전경-남에서(①), 라지구 A구역 Test-pit(2) 토층-북에서(②), 라지구 B구역 전경-남에서(③), 라지구 B구역 Test-pit(1) 토층-남에서(④), 나지구 B구역 Test-pit(1) 전경-남에서(⑤), 나지구 B구역 Test-pit(2) 전경-서에서(⑥) /36
- 도판 5. 가-A-Tr1. 출토 유물(1~10), 지표 수습 유물(11~12) /37
- 도판 6. 지표 수습 유물(13~20), 가-A-Tr1. 출토 유물(21~23), 가-B-Tp3. 출토 유물(24~29) /38
- 도판 7. 가-C-Tp1. 출토 유물(30~35), 가-C-Tp3. 출토 유물(36~41), 가-C-Tp2. 출토 유물(42~44) /39
- 도판 8. 지표 수습 유물(45~50) /40

I. 조사개요

성산~표선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하기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결과 온평리 435-1, 491-8, 486-5, 595-4, 신평리 83-9번지에서 유물산포지, 83-6번지의 고인돌, 신천리 41-1번지의 동굴유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박물관이 2000년 3월 21일~2000년 6월 20일 유물산포지의 유물매장량과 유구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와 고인돌 하부를 조사하였다. 신천리 41-1번지 동굴유적은 시굴대상에서 제외되어 차후 조사를 거론하기로 하였다.

시굴조사에서 용기문토기, 압인점열문토기, 각종 조흔문토기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온평리 435-3번지 시굴트렌치에서 다량의 유물과 유구 굴광선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식 확대 발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지 도 위 원 : 정영화(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조 사 단 장 : 유철인(당시 제주대학교박물관 관장,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책임조사원 : 강창화(당시 제주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조 사 원 : 방문배(당시 제주대학교박물관 연구원)

보고서 작성은 방문배가 총괄하였으며 기획 및 편집은 방문배도 맡았다. 유구·유물의 제도 및 잉킹은 양나래(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원)가, 유물 정리와 촬영은 김종찬(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사)이 도움을 주었다. 본문내용은 방문배가 정리하였고 이를 강창화가 수정·가필하였다.

Ⅱ. 현황과 조사방법

1. 조사지의 구획과 시굴상황

조사지역에 대한 구획은 도로공사가 이루어지는 범위내부에 확장되는 도로의 장축방향과 일치시켰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별로 각각 지구번호를 가, 나, 다의 순으로 명명하였으며 동에서 서쪽으로 A구역, B구역, C구역 등의 순으로 명명을 하였다. 그리고 구역내에 위치한 트렌치와 Test-pit 또한 동-서방향으로 번호를 주어 조사하였다.

2. 시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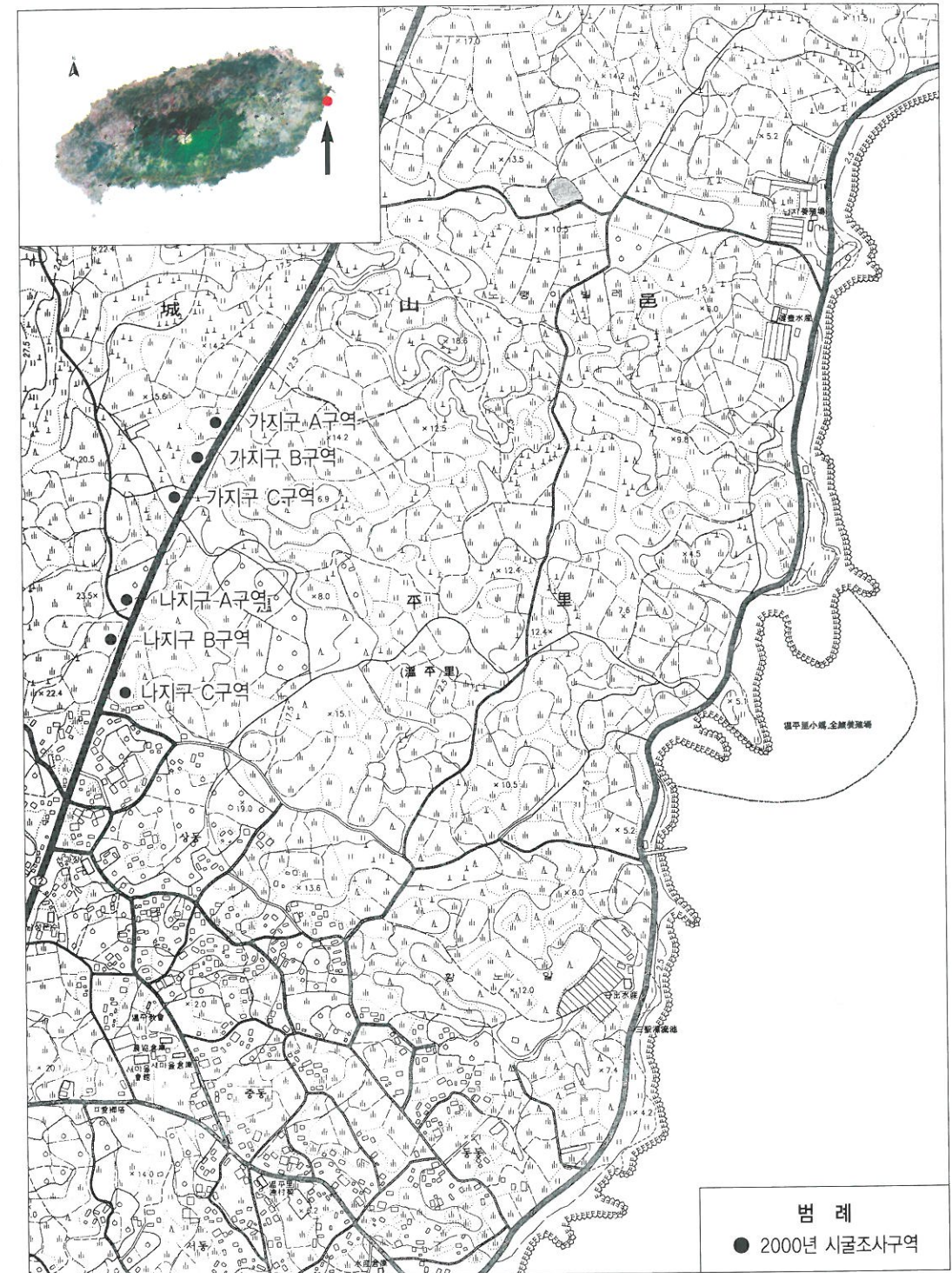
시굴조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지면내의 경작지에 2-3개의 Test-pit를 4×4m의 규모로 설치하였다. Test-pit는 암반층까지 제토작업을 실시하면서 유구가 확인될 경우 유구의 상면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물을 포함하는 문화층의 확인과 암반층까지의 제토를 통하여 토층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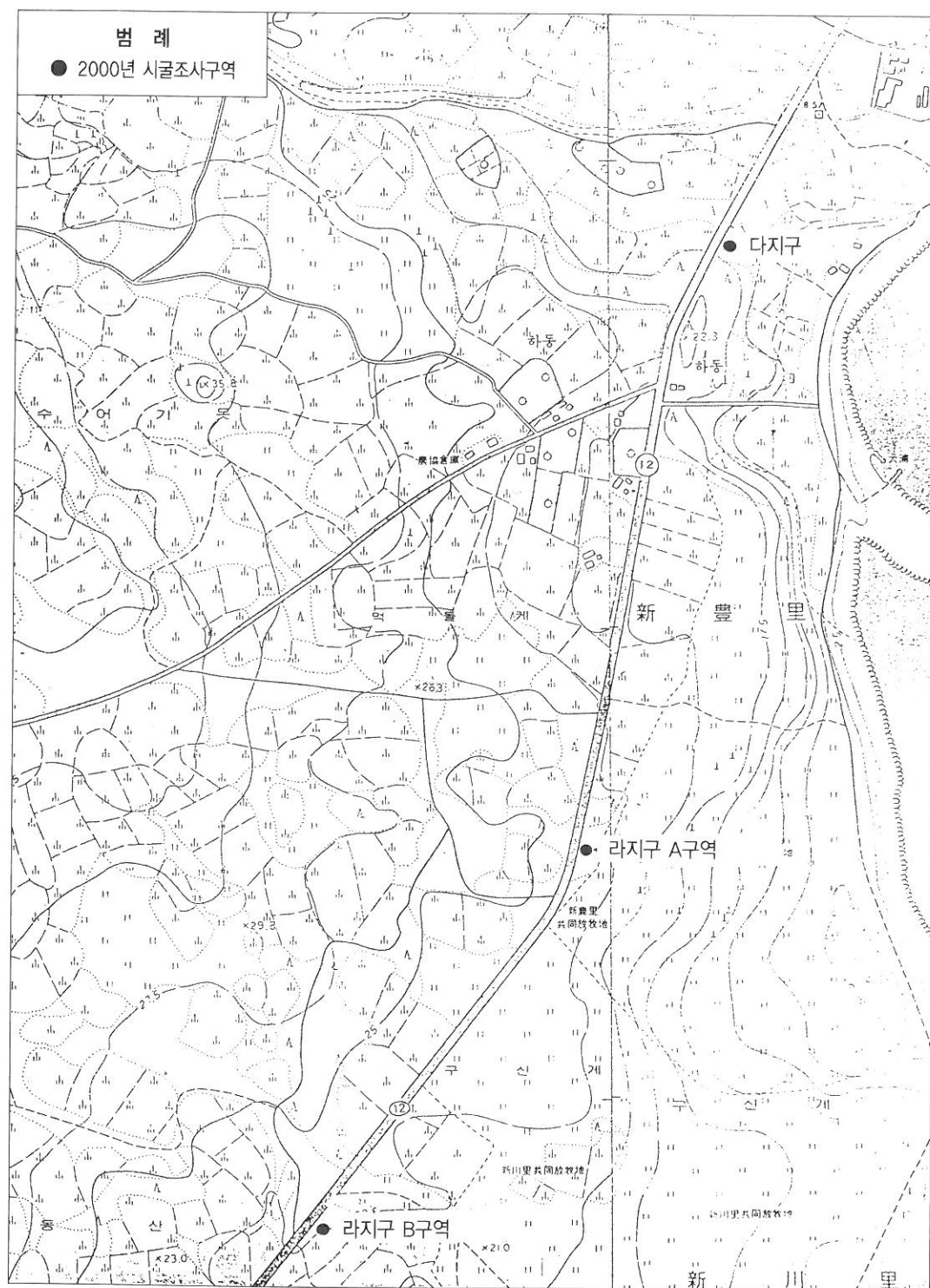
1. 지구별 조사내용

1) 가지구

가지구는 동서단에 얇은 구릉이 위치하며 구릉의 중앙부분인 평탄대지가 이에 속한다. 가지구는 지면을 토대로 3개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즉, 동에서 서쪽방향으로 435-1번지를 A구역, 434-1번지를 B구역으로, 433-1번지를 C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도(축척1/5,000)(1)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도(2)

(1) A구역

435-1번지인 A구역은 가지구의 東端에 위치해 있으며 地表調査時 赤褐色土器 및 역사시대의 각종 유물이 산포된 유물산포지로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조사 당시 유채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형은 북에서 남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동-서로는 평탄하였다. 조사는 먼저 시굴트렌치 1개와 Test-pit 1개를 동-서방향으로 구획하여 실시하였다.

① 동-서트렌치

동-서방향으로 길이 13m, 폭 4m로 구획하여 지표하 20cm까지의 경작층과 경작의 영향을 받은 흑색 및 흑갈색 사질점토를 제거하였다. 경작층 밑으로는 동서방향으로 잡석이 밀집되어 확인되었다. 크기의 대소는 다양하며 근·현대에 매몰된 것으로 밭이 확장되면서 예전의 밭담하부가 잔존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제토시 경작 등의 교란으로 인하여 상부로 올라온 신석기시대의 적갈색토기 잔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② Test-pit 1

동-서트렌치에서 1m 이격(離隔)하여 길이 3m, 폭 2m의 규모로 현무암반층까지 제토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총 5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I·II층은 경작층과 경작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층위이다. III층은 흑갈색 사질점토로 동-서트렌치에서 확인된 잡석열은 III층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IV-1층은 동일레벨상의 V층과 구별되며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이다. 잡석열의 하부에 위치하며 Test-pit의 서단벽에 인접하여 원저의 소형발 1점이 출토되었다. V층은 현무암반층의 상면에 얇게 확인되는 층으로 황갈색 점질토층이다. IV층은 현무암반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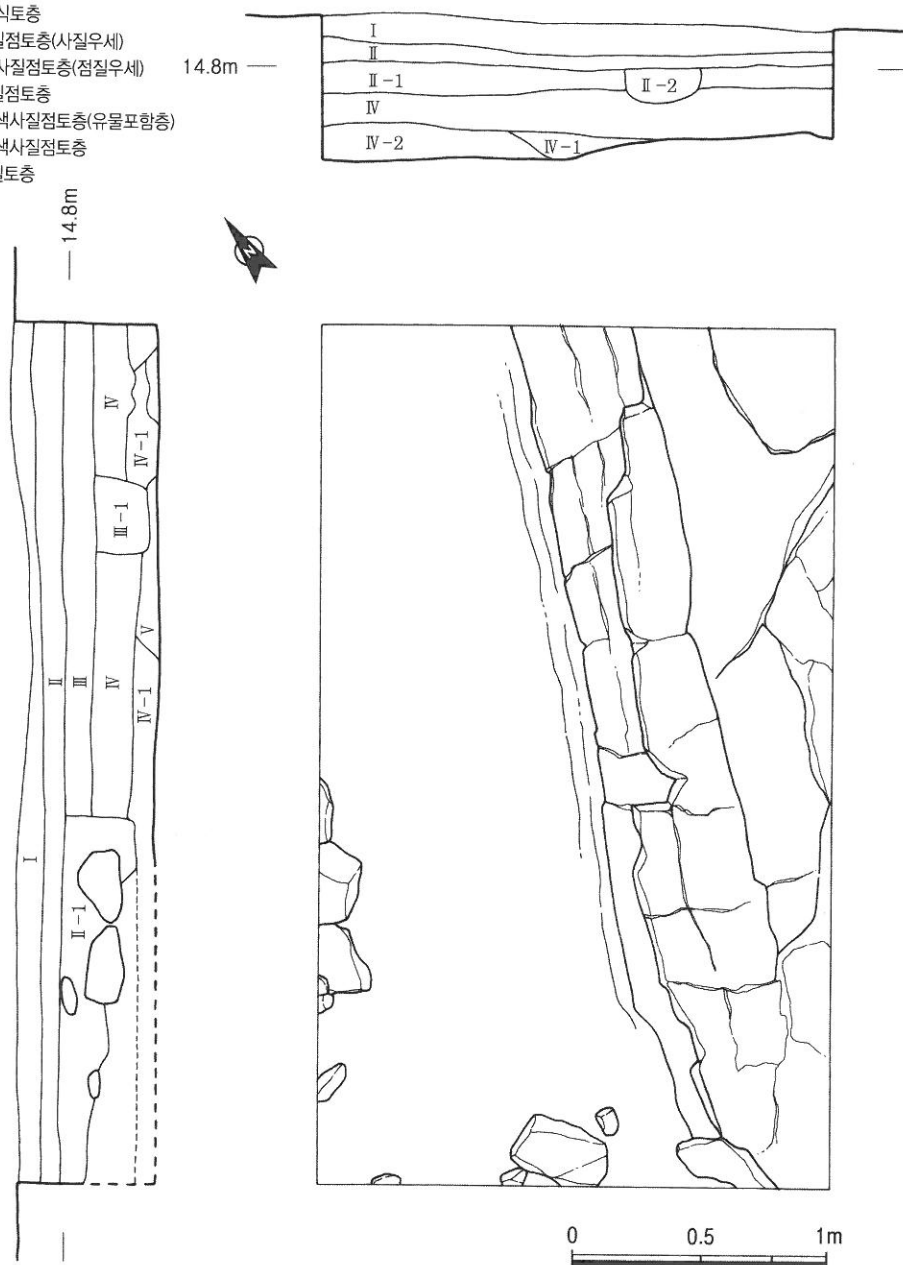
(2) B구역

434-1번지인 B구역은 A구역과 동일한 장축방향으로 구획을 하였다. 조사 당시 당근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도로의 확장구간과 인접한 주변에서 신석기시대의 토기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밭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도로 확장 구간의 대부분이 매립을 통하여 농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하였다.

① Test-pit 1

밭주인의 설명대로 경작중인 지표하 20~30cm를 제외한 하층은 잡석과 현무암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과 문화층은 확인할 수 없었다.

- I: 흑색경작토층
- II: 흑색사질점토층
- II-1: 흑갈색사질점토층
- II-2: 흑색부식토층
- III: 흑갈색사질점토층(사질우세)
- III-1: 흑갈색사질점토층(점질우세)
- IV: 흑갈색사질점토층
- IV-1: 암황갈색사질점토층(유물포함층)
- IV-2: 암황갈색사질점토층
- V: 황갈색점질토층



도면 3. 가지구 A구역 Test-pit 평·단면도

② Test-pit 2

Test-pit 1과 동일하게 지표면에서 현무암반층이 위치한 지표하 약 30cm까지 경작토인 상층과 흑색 부식토와 황갈색 점질토가 혼합된 매립토층이 확인되었으며 곧바로 현무암반층이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 및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③ Test-pit 3

B구역의 서단부분에 위치하며 Test-pit 1·2와 달리 토심이 깊다. 약 30cm까지 제토를 하였으나 매립에 의한 토층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토기편을 다량 포함하는 수혈이 확인되어 현상에서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앞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C구역

가지구의 서단부분에 위치한 433-1번지이다. 시굴조사 당시 당근밭이 경작이 되고 있었다. 시굴조사를 통하여 중앙부분에 위치한 Test-pit 2와 같이 토심이 얇은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Test-pit 1, 3은 토심이 깊고 현무암반층의 상층인 황갈색 점질토층이 얇지만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Test-pit 1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석기 등을 포함한 부정형 수혈유구가 확인되어 유구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① Test-pit 1

C구역의 동단 초입부분이다. 매립이나 현상변경이 없이 경작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층을 현무암반층을 포함하여 6개의 층위가 확인된다. Test-pit의 북쪽 모서리로 얇은 부정형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부정형 수혈유구는 현무암반층의 상층인 황갈색 점층을 굴광하고 만들어졌으며 잡석과 함께 모서리 부분에서 길이 15cm, 폭 7.5cm의 석기 1점과 토기편이 수점 확인되었다.

② Test-pit 2

433-1번지의 중앙부분에 해당하며 토심은 20~25cm 가량으로 얇다. 경작이나 경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위 2개층을 제외하면 현무암반층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Test-pit 1·3과 비교하여 암반층이 높게 올라와 있다. 유물은 현무암반층의 상층인 Ⅲ층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 수점이 출토되었다.

③ Test-pit 3

C구역의 남단에 위치하며 토심은 40cm 이상으로 깊은 편이다. 층위는 5개 이상으로 잡석이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를 종료하였다. 토심이 깊고 퇴적층에서 토기편이 수점 확인되어 유

구의 존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지구

나 지구는 가지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성산읍에서 온평리 방향으로 온평리의 마을 입구 부분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491-8·486-1·595-30번지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595-30번지에서는 지표조사시 신석기시대의 토기편이 채집된 곳이다.

(1) A구역

나지구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산 방향이다. 온평리 491-8번지에 해당하며 조사할 때 과수원이었다. 지표조사 당시 지표에서 무문토기편 수점이 확인되었으나 도로구획선이 배수로와 돌담을 약간 넘는 선에서 구획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위한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또한 성산 쪽에서 이어진 암반층이 지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2) B구역

486-5번지에 해당하며 나지구의 중앙부분에 위치해 있다. 현재 매립이나 현상변경 없이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표조사 당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된 곳이다. Test-pit는 과수목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암반층을 피하여 구획하였다. 지표조사 당시 유물이 확인된 해당번지의 남단부분과 중앙부분에 2×2m의 Test-pit를 남북방향으로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est-pit 1

486-5번지의 중앙부분이며 도로에서 이어지는 과수원의 입구부분이다. Test-pit의 북쪽의 절반정도는 지표하 25cm 정도를 제토한 결과 현무암반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암반층이 사방향으로 이어지며 암반층을 포함한 6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층위는 다음과 같다. I 층은 지표하 20~25cm 가량이며 경작층이다. II 층은 경작의 영향을 받은 층으로 명갈색 사질점토층이다. 유물은 신석기토기편 2점이 II 층과 암반층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III 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점질이 우세하며 암반층이 이어지는 사방향으로 퇴적된 상태이다. IV 층은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으로 추정된다. V 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암반층으로 이어진다.

② Test-pit 2

486-5번지의 남단에 해당하며 지표조사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된 곳이다. 확인된 층위는 현재 3개의 층위이다. I 층은 경작층으로 지표하 10~15cm 가량이다. II 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경작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층위이다. III 층은 지표하 약 20cm 가량에서 확인되며 암갈색 사질점토이다. III 층에서는 다수의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교란구덩이 그리고 굴착으로 추정되는 굴광선이 확인되어 작업을 중단하였다. 교란구덩이에서는 지표의 경작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대에 인위적으로 교란된 흔적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III 층에 해당하는 Test-pit 의 전면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유물포함층이 확실하여 주변으로 조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C구역

595-4번지이며 나지구 남단의 온평리 입구부분에 해당된다. 현재 과수원이며 지표조사시 신석기시대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Test-pit 는 과수목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암반층을 피하여 구획하였다. 시굴지역은 과수원의 입구부분을 기점으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1개씩의 Test-pit를 설치하여 구획·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est-pit 1

595-4번지의 북동쪽에 해당한다. 평탄한 중앙부분에 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룬 후 평탄해진다. Test-pit 는 평탄한 지형에 구획하였으며 조사결과 4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I 층은 경작층이며 II 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다. III 층은 점질이 우세한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유물이 확인되는 유물포함층이다. III-1층은 III 층보다는 사질이 우세한 암황갈색 사질점토이다. III-1층은 전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형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원형의 석렬은 20~30cm 가량의 괴석을 원형으로 돌린 것으로 하부에 자갈한 잡석을 일부 고인 후 1단으로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의 석렬 밖으로는 신석기시대 토기편을 포함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고 있으나 석렬 내부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Test-pit 2

595-4번지의 남서편에 해당하며 지표조사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된 곳이다. 확인된 층위는 현무암반층을 포함하여 4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I 층은 경작층으로 지표하 10~15cm 가량이다. 지표면과 경작층 내부에서 다량의 페아스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국도 개설 당시 이 지역이 작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II 층은 암갈색 점질점토층으로 단단하다. III 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이며 현무암반층으로 이어진다. III 층과 현무암반층 사이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 2점과 석영재질의 석재 1점이 출토되었다.

3) 다지구

다지구는 행정구역상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83-6번지 임야로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동서 양방향으로 임야가 있으며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유체가 경작되고 있었다. 지형은 도로 가장자리인 북쪽 방향이 높고 해안방향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고인돌은 유채밭의 중앙부분에 위치하며 확장되는 도로구간의 선상에 걸쳐 있었다. 조사는 고인돌의 상석을 중심으로 2×3m의 pit 4개를 네 방향으로 구획하고 중앙부분에는 「+」자 형태의 독을 두었다.

조사는 먼저 상석을 중심으로 전술한 형태로 구획한 후 상석을 실측하였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의 형태로서 북쪽의 단부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상석의 규모는 길이 152cm, 폭 130cm, 두께 약 40~50cm로써 현무암이다. 상석의 상면과 측면 등에서는 성혈이나 기타 인위적인 가공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상석주변 pit(서쪽방향의 pit를 1로 하고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줌)의 제토작업은 pit 2·4를 먼저 조사하고 pit 1·3을 후에 제토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15~20cm 가량을 제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작층과 경작층 하부로 점석층이 확인되었다. 점석층은 지표에서 60~70cm의 깊이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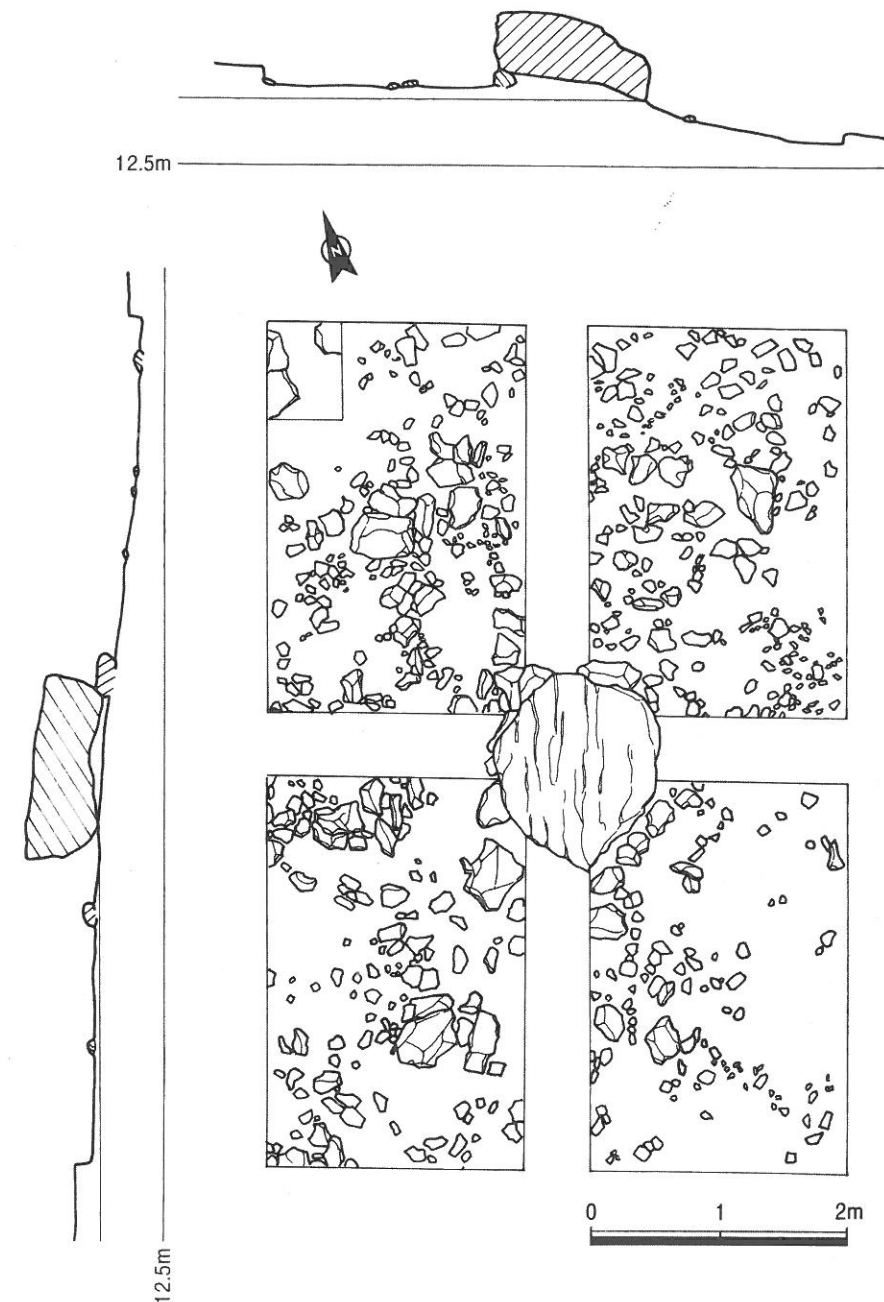
각 pit에 대한 평면 및 단면실측, 레벨링작업을 마무리하고 상석을 제거하였다. 상석을 제거한 후 하부를 조사하였다. 상석을 받치던 지석은 경사가 높은 북쪽과 서쪽 방향에서 확인되며 할석이 아닌 천석이였다. 하부의 중앙부분으로는 길이 142cm, 폭 60cm, 깊이 약 20cm의 규모로 장타원형의 소형수혈이 확인된다. 상면에서 수혈의 주변을 돌며 20~30cm 가량의 할석이 확인되는데 하부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형수혈의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흑색사질점토이며 부식토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부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는 목재의 흔적이 확인되어 최근에 교란과 관계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밭주인인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현재의 상석 위치는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조사결과 상석의 경우는 고인돌의 상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하부형태에 있어서는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라지구

라지구는 행정구역상 남제주군 성산읍 신평리 41-1번지 일대로서 동굴유적이 확인된 곳이다. 동굴유적에 대한 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주변지역은 간단히 Test-pit를 조사하여 유적주변의 지형과 퇴적상황 등을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지표상에서는 적갈색토기편이 소수 확인되나 Test-pit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유물과 선사시대의 유구흔적은 없었다.



도면 4. 다지구 추정지석묘 평·단면도

(1) A구역

A구역은 32-1번지의 과수원으로서 밀감나무 묘목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곳 역시 확장되는 도로구간의 장축방향과 일치하게 30×4m의 트렌치를 구획하고 양쪽 끝에 4×4m규모의 Test-pit 2개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Test-pit 전체를 제토하지 않고 1/4규모로 암반층까지 토양의 퇴적상태를 확인하였다.

① Test-pit 1·2

Test-pit 1·2의 토층상태와 현상이 동일하여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제토시에 확인된 유물은 없었으며 토층은 현무암반층을 포함하여 6개의 층위로 나뉘어진다. 지표하 20~25cm까지는 I·II층에 해당하며 흑색부식토층으로 경작과 관계된 층위이다. III층은 20~30cm 가량의 잡석을 포함한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경작과는 관계가 없으나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층의 잡석은 제거되고 하부의 잡석들이 잔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IV층과 V층은 퇴적토의 1/2가량이 이에 해당되며 인위적인 행위가 감지되지 않는 토층으로 점질이 우세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다. 층위의 중앙부분으로는 흑갈색 부식토가 커로 쌓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 A구역에 관련한 조사결과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퇴적층의 두께가 100~130cm가량되는 비교적 깊은 상태이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방향에서는 암반층 내지 빌레가 확인되고 있어 중간에 위치인 얇은 계곡부분으로 추정된다.

(2) B구역

B구역은 41-2번지의 경작지로 동굴유적의 남쪽발에 해당한다. 이곳 역시 A구역과 동일하게 확장되는 도로구간의 장축방향과 일치시켜 30×4m의 트렌치를 구획하고 양쪽 끝에 4×4m규모의 Test-pit 2개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① Test-pit 1·2

전반적인 층위상황과 퇴적양상이 동일하여 통합하여 기술한다. 전반적인 토층상황은 A구역의 토층상황과 대동소이하다. 즉 층위는 6개로 나뉘어진다. I·II층은 흑색부식토층으로 경작과 관계된 층위로 지표하 20~25cm에 해당된다. III층은 20~30cm 크기의 잡석을 포함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다. 경작과는 관계가 없으나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층의 잡석은 제거되고 하부의 잡석들이 잔존한 것으로 A구역의 토층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IV층은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이며 V층은 황갈색 사질점토로 점성이 강하다. 그리고 IV층과 V층의 사이에는 흑색 부식토가 확인된다.

이상 B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유물 및 유구와 관계된 흔적이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토양이 퇴적된 양상에 있어서도 A구역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출토유물

조사대상지 중 가지구를 중심으로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은 확인할 수 없었다. 토기유물은 용기문토기, 압인압날문토기, 침선문토기, 무문양토기이며 석기유물로는 타제석기, 공이, 홈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1)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용기문토기의 형식은 토기면에 용기띠를 덧붙여 문양대를 구성한 용기문토기로 문양시문 방법에 따라 크게 용기대문과 용기선문으로 세분된다. 기형은 발형(鉢形), 심발형(深鉢形)으로 추정되며 저부형태도 평저(平底)로 추정된다.

구연형태는 대체로 직립이 주를 이루며 구순부형태는 둥근 형태가 많다. 이 유물의 출토예는 고산리 동굴입구집자리, 고산리유적, 삼양동유적, 신평리 동굴입구집자리가 있다. 조사대상지에서 발견되는 용기문토기는 돌산 송도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 용기선문 토기와 유사하다.

(2) 압인·압날문토기는 단치구(單齒具)나 다치구(多齒具)로 눌러 점렬문을 구성한 토기형식으로 押印點列文과 押捺기법의 평행점렬문, 기하학적 점렬문 등이 있다. 기형은 평저의 발형토기와 圓底 半卵形의 토기로 추정된다. 태토는 대부분 점토질 태토로서 현무암 알갱이, 세사립 등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적갈색, 갈색, 흑갈색 등을 띠며 두께는 0.7~1cm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형식은 시문방법상 압인점렬문토기와 압날점렬문으로 세분된다. 조사대상지에서 발견되는 압날문은 지두문과 연속손톱무늬가 있다.

(3) 다른 형식의 토기는 변형의 침선문계토기이다. 이 형식은 沈線文系 土器로서 문양시문은 주로 가늘고 얇게 시문한 것이 특징이고 구연부에서 일정간격 내려와 다치구로 그은 문양대가 보인다. 문양은 단사선문 위주이다.

(4) 무문양토기는 소형원저발이다. 최대경은 동체부하단에 있으며 내외면에 손누름흔적과 조흔문이 보인다.

(5) 석기는 433번지에서 현무암제의 공이형 석기 1점이 확인되었으며 한면이 많이 마모된 상태이다. 그리고 주변의 지표채집을 통하여 조면암제 타제석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의 소속시기는 대체로 현재 한국 신석기토기의 연대관으로 보면 대략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경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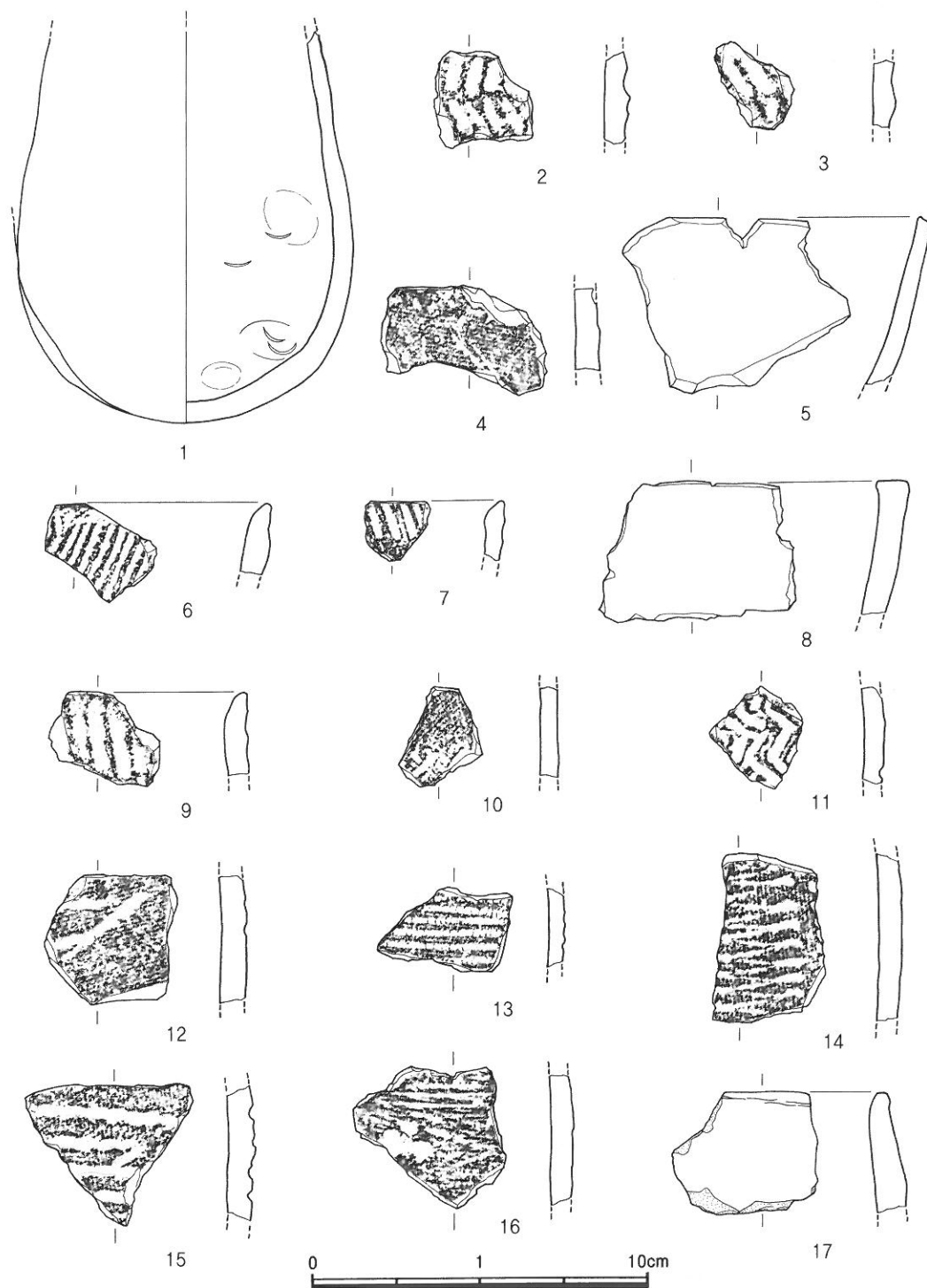
표 1. 출토유물-토기류

번호	도면	도판	명 칭	출토지	크 기(cm)			색 조	태 토	내 용
					장(현고)	단	두께			
1	5	5	원저심발형	가-A-Tr1	11.7		0.8	명갈색	현무암사립	무문양, 내면바닥에 조흔이 있음
2	5	5	동체부편	가-A-Tr1	2.9	2.8	0.7	명갈색	현무암사립	2조의 횡방향 어골문, 수리공 있음
3	5	5	동체부편	가-A-Tr1	2.5	2.1	0.6	명갈색	현무암사립	2조의 횡방향 어골문 시문
4	5	5	동체부편	가-A-Tr1	4.8	2.6	0.7	명갈색	현무암사립	외면 사선의 정면흔, 내면 조흔문
5	5	5	구연부편	가-A-Tr1	5.0		0.5	명갈색	현무암사립	발형토기, 횡방향 물손질
6	5	5	구연부편	가-A-Tr1	2.1		0.7	명갈색	현무암사립	발형토기, 점렬문 시문
7	5	5	구연부편	가-A-Tr1	1.8		0.6	명갈색	운 모	발형토기, 1렬의 사집선문 시문됨
8	5	5	구연부편	가-A-Tr1	3.9		0.8	명갈색	현무암석립	발형토기, 구연단 편평하게 처리
9	5	5	구연부편	가-A-Tr1	2.5		0.7	명갈색	현무암세사립	폭 0.4cm의 종방향 압인문 시문됨
10	5	5	동체부편	가-A-Tr1	2.9	2.4	0.5	명갈색	현무암사립	□×□□자상의 단사선문 시문됨
11	5	5	동체부편	지표	3.0	2.8	0.6	명갈색	현무암사립	어골문 시문됨
12	5	5	동체부편	지표	3.7	3.5	0.7	명갈색	현무암석립	조우문 시문됨
13	5	6	동체부편	지표	3.7	2.5	0.5	명갈색	현무암사립	다치구의 압인횡선문 시문됨
14	5	6	동체부편	지표	5.0	3.3	0.6	흑갈색	석영석립	다치구의 지그재그문 시문됨
15	5	6	동체부편	지표	5.0	4.2	0.7	명갈색	현무암석립	횡방향 압인점렬문 시문됨
16	5	6	동체부편	지표	4.5	4.2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사선방향 조흔문, 일부 석영석립혼입
17	5	6	구연부편	지표	3.7	4.4	0.7		현무암사립	내면에 조흔문이 일부 확인됨
18	6	6	구연부편	지표	3.1	3.1	0.7	명갈색	석영석립	내외면에 조흔문이 일부 남아있음
19	6	6	구연부편	지표	2.9	3.5	0.7	명갈색	현무암세사립	정선된 태토로 성형, 물손질흔
20	6	6	구연부편	지표	2.7	2.4	0.6	흑갈색	현무암석립	구순일부에 음각사선이 있음
21	6	6	동체부편	가-A-Tr1	4.7	4.5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내면 지두흔
22	6	6	동체부편	가-A-Tr1	3.2	2.4	0.5	적갈색	현무암석립	
23	6	6	동체부편	가-A-Tr1	3.2	2.3	0.6	명갈색	현무암석립	
24	6	6	동체부편	가-B-Tp3	3.6	2.7	0.8	적갈색	현무암석립	
25	6	6	동체부편	가-B-Tp3	3.4	2.3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26	6	6	동체부편	가-B-Tp3	4.8	3.1	0.9	흑갈색	현무암석립	
27	6	6	동체부편	가-B-Tp3	3.2	3.2	0.9	적갈색	현무암석립	
28	6	6	동체부편	가-B-Tp3	3.4	3.2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29	6	6	동체부편	가-B-Tp3	3.1	1.9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구연부 잔존
30	6	7	동체부편	가-C-Tp1	3.5	2.4	0.7	명갈색	현무암석립	
31	6	7	동체부편	가-C-Tp1	3.0	2.3	0.7	흑갈색	현무암석립	
32	6	7	동체부편	가-C-Tp1	3.1	2.9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33	6	7	동체부편	가-C-Tp1	2.7	2.2	0.5	적갈색	현무암석립	
34	6	7	동체부편	가-C-Tp1	3.7	1.5	0.8	적갈색	현무암석립	
35	6	7	동체부편	가-C-Tp1	2.9	2.8	0.8	적갈색	현무암석립	
36	6	7	동체부편	가-C-Tp3	2.6	1.9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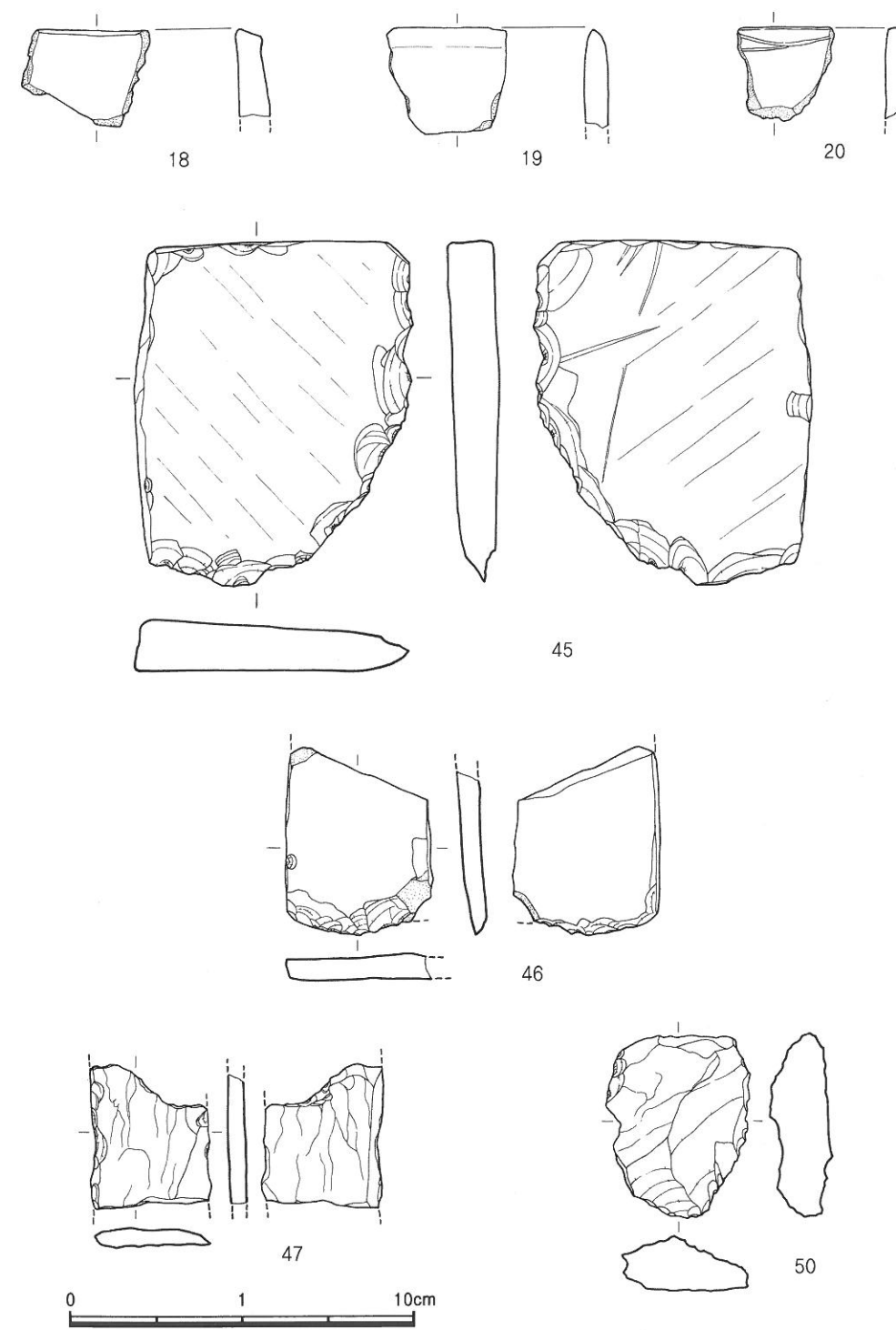
번호	도면	도판	명 칭	출토지	크 기(cm)			색 조	태 토	내 용
					장(현고)	단	두께			
37	6	7	동체부편	가-C-Tp3	2.4	1.6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38	6	7	동체부편	가-C-Tp3	2.8	2.2	0.8	흑갈색	현무암석립	
39	6	7	동체부편	가-C-Tp3	2.6	1.7	0.7	적갈색	현무암석립	
40	6	7	동체부편	가-C-Tp3	2.3	1.7	0.6	흑갈색	현무암석립	
41	6	7	동체부편	가-C-Tp3	3.1	2.1	0.6	흑갈색	현무암석립	
42	6	7	동체부편	가-C-Tp2	2.8	1.9	0.6	적갈색	현무암석립	
43	6	7	동체부편	가-C-Tp2	2.8	2.2	0.7	흑갈색	현무암석립	
44	6	7	동체부편	가-C-Tp2	2.6	2.2	0.6	명갈색	현무암석립	

표 2. 출토유물-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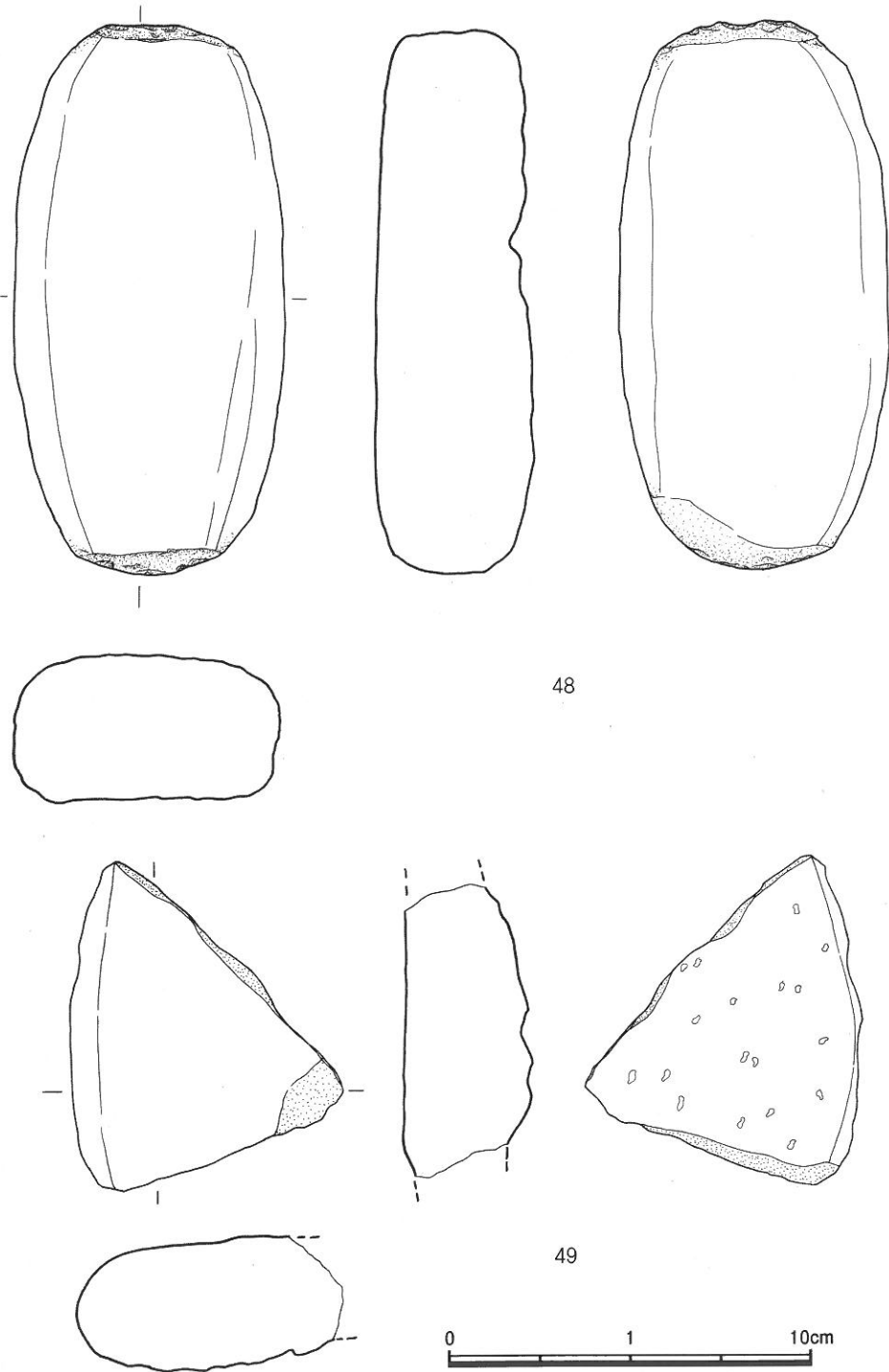
번호	도면	도판	명 칭	출토지	크 기(cm)			색 조	태 토	내 용
					장(현고)	단	두께			
45	7	8	타제석기	지표	9.9	8.0	1.3	회갈색	조면암재	단면 삼각형, 일부 인부성형
46	7	8	타제석기	지표	4.8	4.2	0.6	회백색	조면암재	장방형으로 일부 인부성형
47	7	8	타제석기	지표	3.8	3.3	0.5	회청색	조면암재	상하단 결실, 양단부 인부성형
48	7	8	고석	지표	15.1	7.4	4.1	회 색	조면암재	상하단에 집중적인 마모흔이 있음
49	7	8	갈돌	지표	9.1	7.0	5.5	회청색	다공질현무암	대부분 결실, 전면에 마모흔 있음
50	7	8	석편	지표	5.2	4.2	1.7		황강편마암	석재편으로 미완성석제품



도면 5. 가-A-Tr1. 출토 유물(1~10), 지표 수습 유물(11~17)



도면 6. 지표 수습 유물(18~20, 45~50)



도면 7. 지표 수습 유물(48~49)

V. 맺음말

이 조사는 2000년 3월 21일부터 2000년 6월 20일 제주대학교에서 유물산포지 5개소(온평리 435-1, 491-8, 486-5, 595-4, 신평리 83-9번지)와 고인돌(支石墓) 1기에 대해 시굴조사하였다. 이번 시굴조사에서 용기문토기, 압인점렬문토기, 각종 조흔문토기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가지구에 속하는 온평리 435-1번지 시굴트렌치에서 다량의 유물과 유구 굴광선을 확인하였다.

가지구 A구역에서는 근·현대에 매몰된 것으로 밭이 확장되면서 예전의 밭담 하부가 잔존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제토시 경작 등의 교란으로 인하여 상부로 올라온 신석기시대의 적갈색토기 잔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가지구 C구역(가지구의 서단부분에 위치한 433-1번지)은 토심이 깊고 현무암반층의 상층인 황갈색 점질토층이 얇지만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Test-pit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석기 등을 포함한 부정형 수혈유구가 확인되어 유구의 존재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는 지역이다.

나지구에서는 B, C구역 내 4개의 피트에서 유물층을 확인하였다. 먼저 B구역(486-5번지)의 Test-pit 1에서는 II층에서 신석기토기편 2점이 암반층 사이에서 출토되었고 IV층(암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Test-pit 2(486-5번지의 남단)III층에서 다수의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교란구덩이, 그리고 굴착으로 추정되는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한편 C구역(595-4번지)의 Test-pit 1에서는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1층은 경작층이며 II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다. III층은 점질이 우세한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유물이 확인되는 유물포함층이다. III-1층은 III층보다는 사질이 우세한 암황갈색 사질점토이다. III-1층은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되었지만 원형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원형의 석렬은 20~30cm 가량의 괴석을 원형으로 돌린 것으로 하부에 자갈한 잡석을 일부 고인 후 1단으로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의 석렬 밖으로는 신석기시대 토기편을 포함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Test-pit 2(595-4번지의 남서편)의 III층(사질점토층)과 현무암반층 사이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 2점과 석영재질의 석재 1점이 출토되었다.

다지구는 고인돌이 있는 확인된 지점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의 형태로서 북쪽의 단부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상석의 규모는 길이 152cm, 폭 130cm, 두께 약 40~50cm로서

현무암제이다. 상석의 상면과 측면 등에서는 성혈이나 기타 인위적인 가공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주변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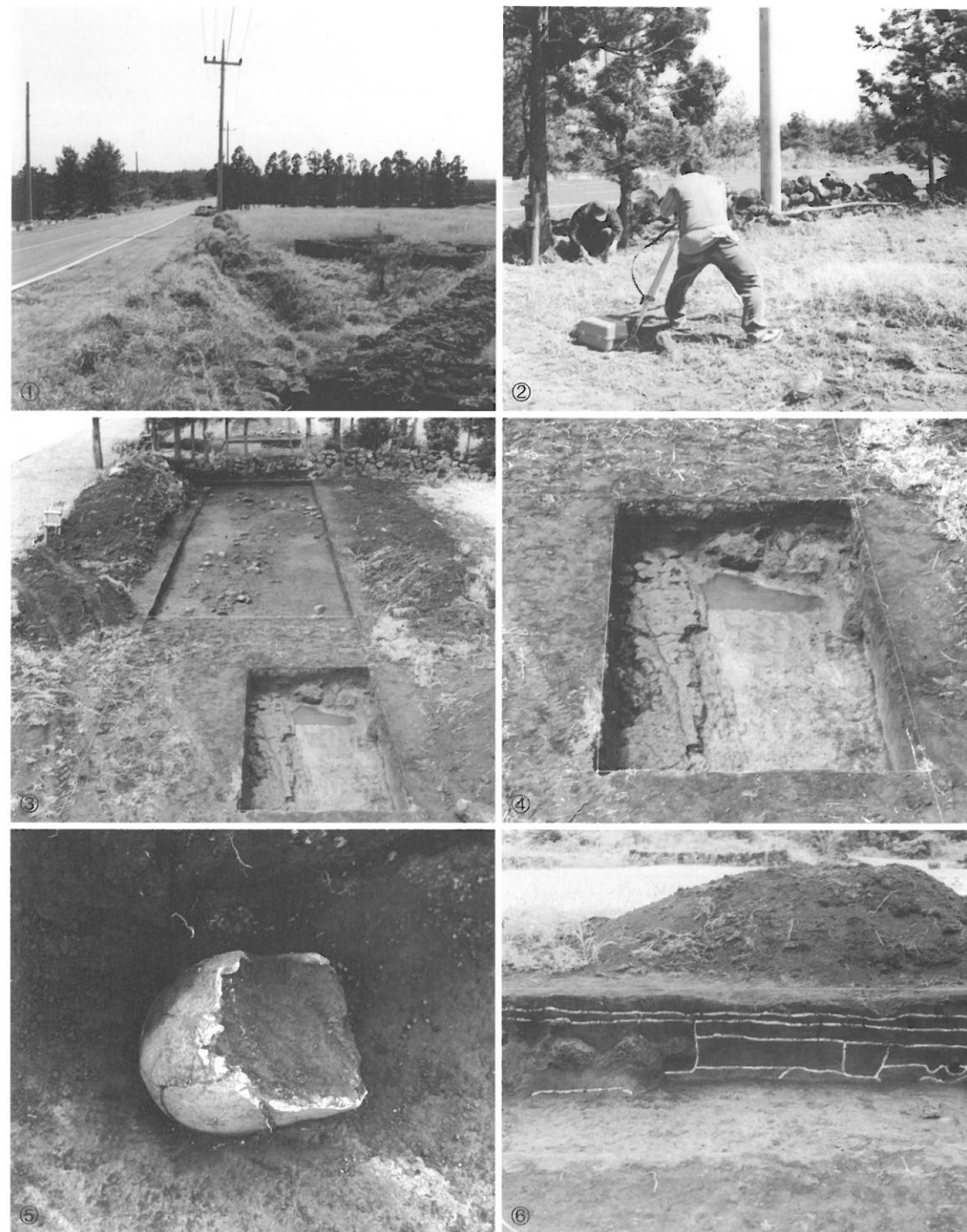
상석을 받치던 지석은 경사가 높은 북쪽과 서쪽방향에서 확인되며 할석이 아닌 천석이였다. 하부의 중앙부분으로는 길이 142cm, 폭 60cm, 깊이 약 20cm의 규모로 장타원형의 소형수혈이 확인된다. 상면에서 수혈의 주변을 돌며 20~30cm 가량의 할석이 확인되는데 하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조사결과 상석의 경우는 고인들의 상석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하부형태에 있어서는 고인들의 하부구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석이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지구는 행정구역상 남제주군 성산읍 신평리 41-1번지 일대로서 동굴유적이 확인된 곳이다. 동굴유적 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주변에 대한 간단한 Test-pit를 조사한 후 유적 주변의 지형과 퇴적상황 등을 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지표상에서는 적갈색토기편이 소수 확인되나 Test-pit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 및 선사시대의 유구 흔적은 확인된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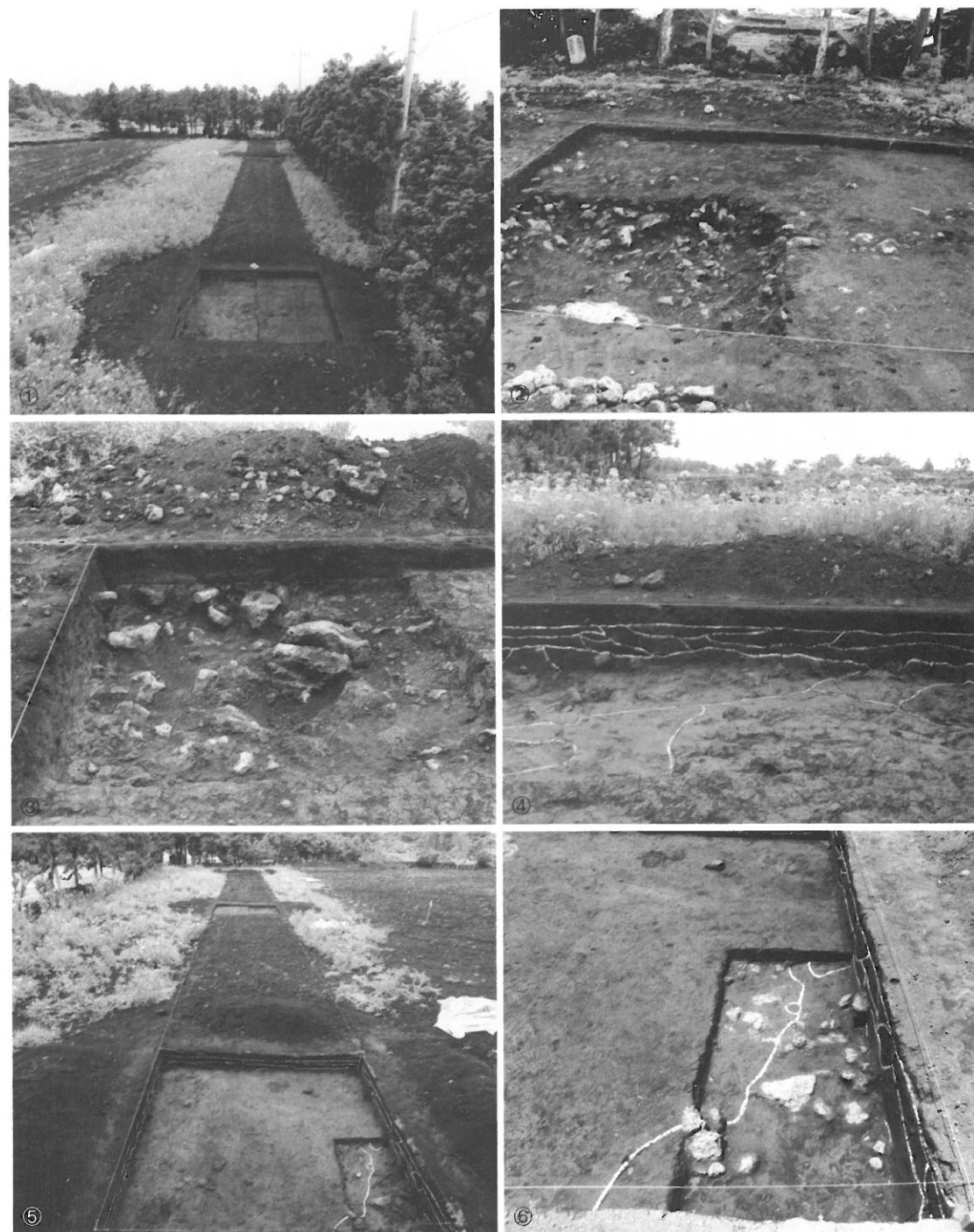
發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성산~표선간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내 온평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發刊日	2006年 6月 日
發刊機關	名稱	제주대학교박물관			
	住所	(690-805)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TEL		FAX		
執筆・編輯	강창화, 방문배, 김종찬, 양나래				
調査緣由	성산~표선간 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시굴조사				
發掘調査者	강창화, 방문배, 김정주, 김종찬, 오연숙				
所在地番	남제주군 온평리 435-1, 491-8, 486-5, 595-4, 신평리 83-9번지				
調査面積	남제주군 온평리 4필지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유물산포지	신석기시대	1	압인문계토기	발굴조사 필요	
지석묘	청동기시대	1	.	상석 원상 이동(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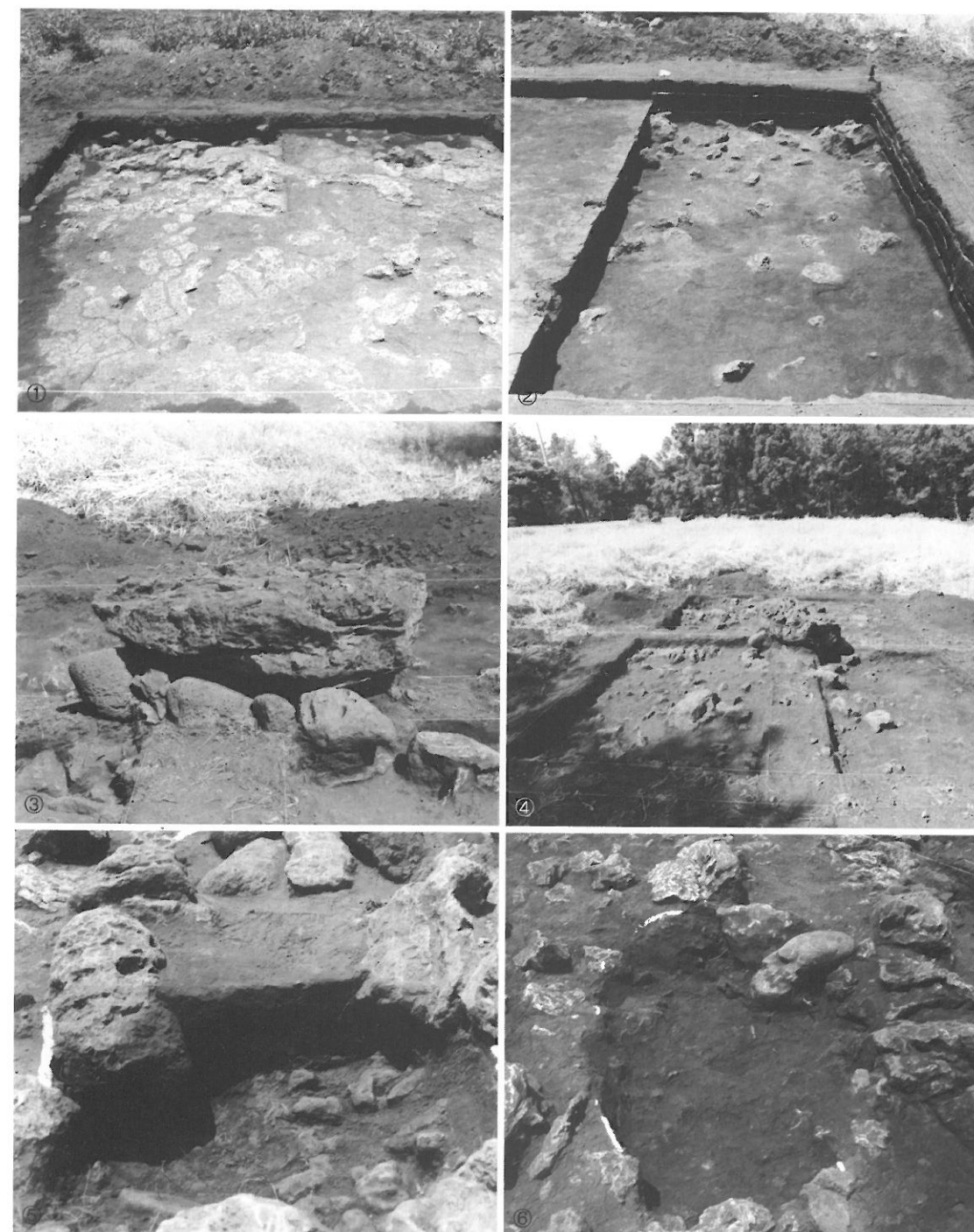
圖 版



도판 1. 435-1번지 일대 전경(①), 조사대상지 구획작업 전경(②), 435-1번지 조사 광경-동에서(③),
435-1번지 Test-pit(1) 전경-동에서(④), 435-1번지 Test-pit(1) 적석하부 토기 출토 상태(⑤),
435-1번지 Test-pit(1) 토층 전경-남에서(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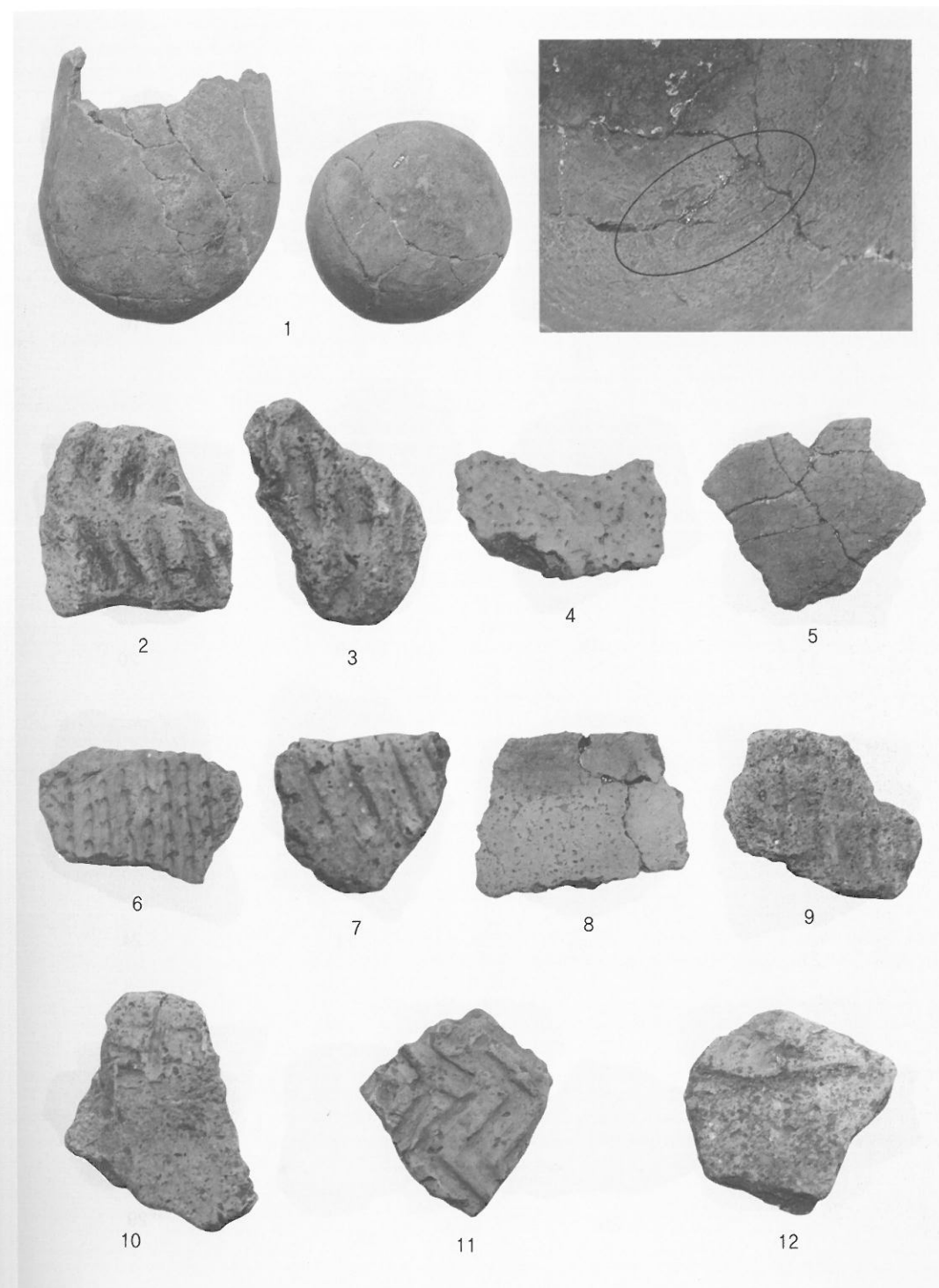
도판 2. 434-1번지 조사 광경-서에서(①), 434-1번지 Test-pit(1) 전경-서에서(②), 434-1번지 Test-pit(2) 토층 전경-남에서(③), 434-1번지 Test-pit(3) 토층 전경-남에서(④), 433-1번지 조사 광경-동에서(⑤), 433-1번지 Test-pit(1) 수혈유구 전경-동에서(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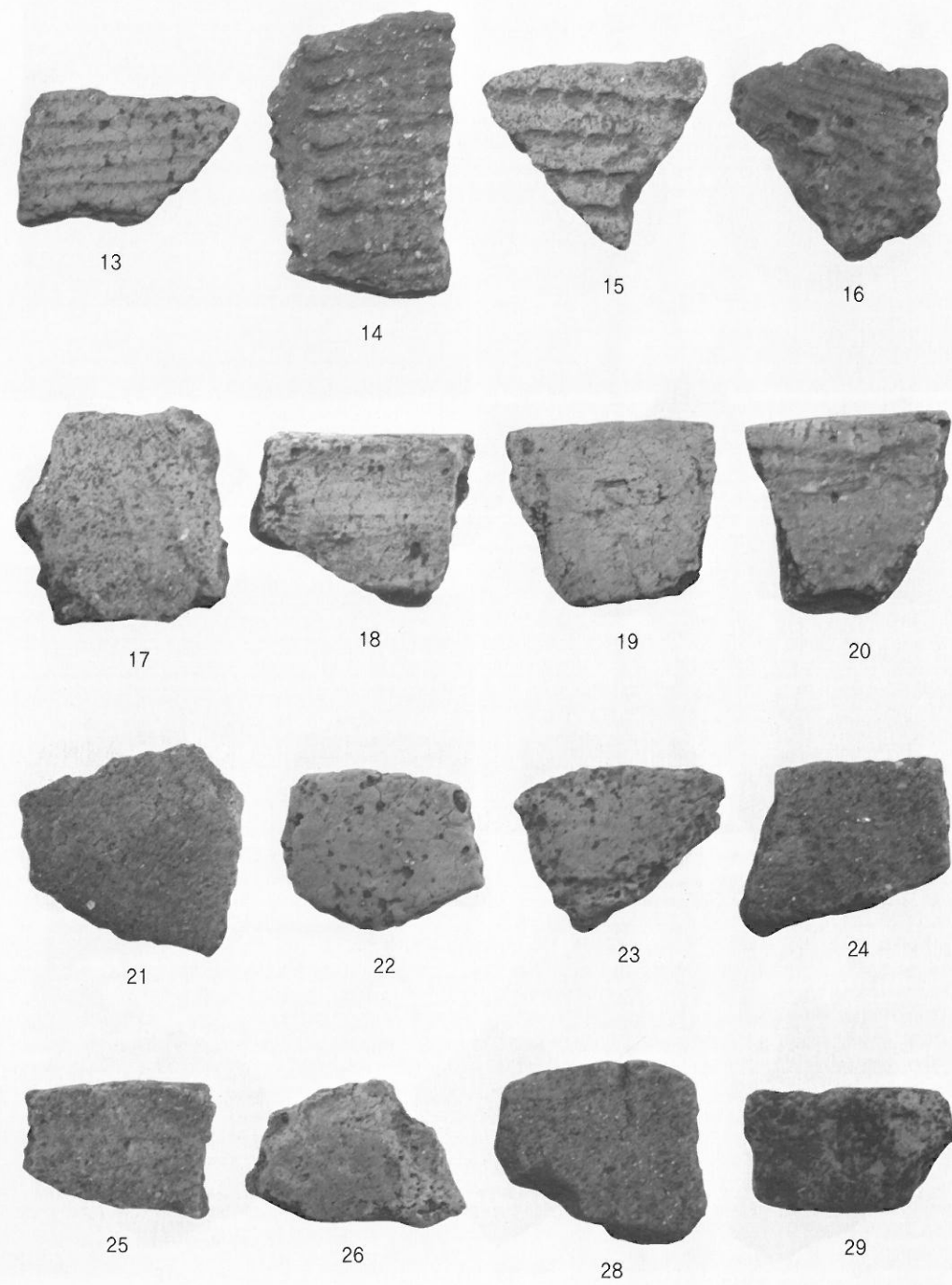
도판 3. 433-1번지 Test-pit(2) 전경-남에서(①), 433-1번지 Test-pit(3) 전경-동에서(②), 신평리 83-6번지 고인돌 광경-서에서(③), 고인돌 조사 광경-남에서(④), 고인돌 하부 구조 내 토층-북에서(⑤), 고인돌 하부 구조 조사 전경-남에서(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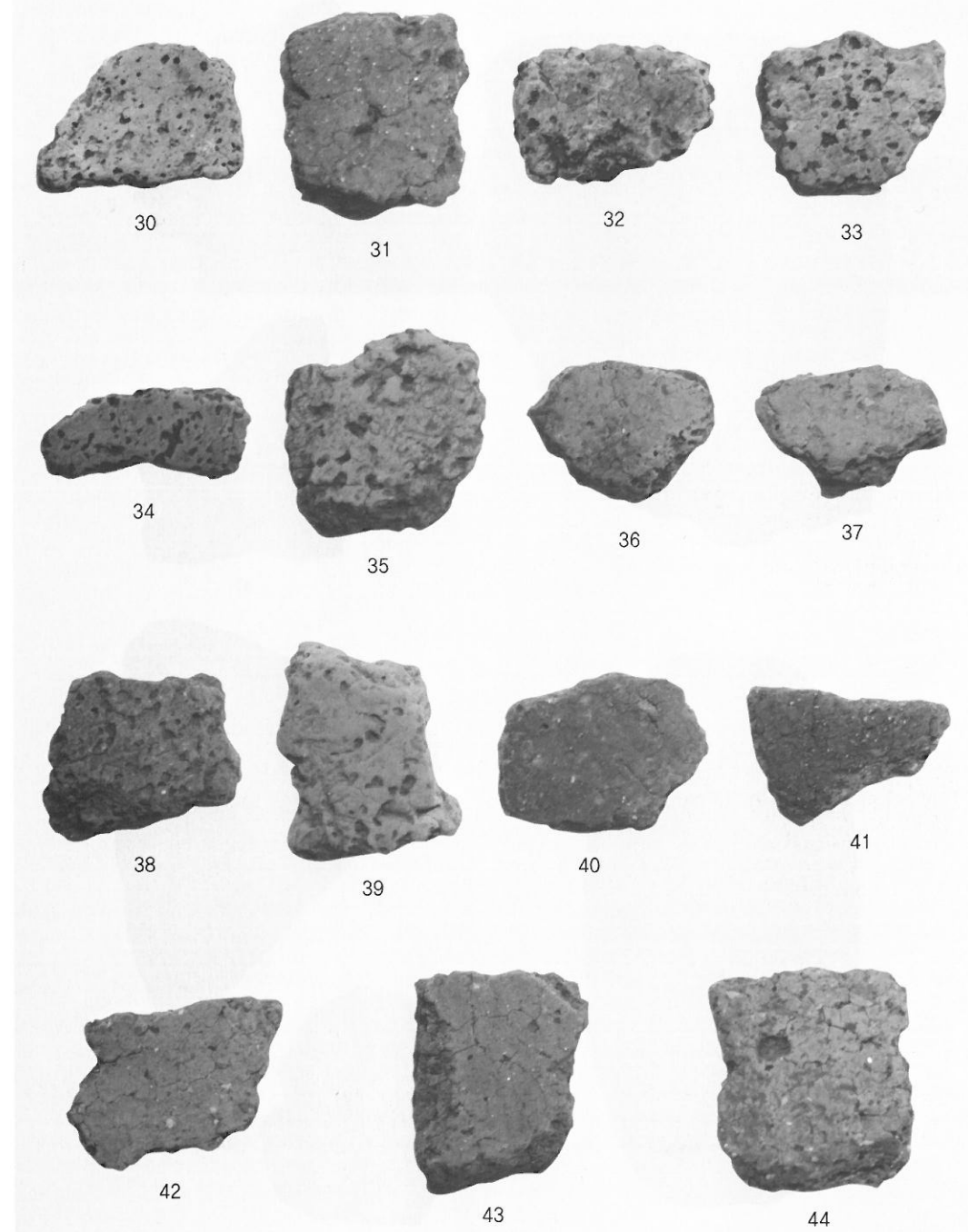
도판 4. 라지구 A구역 전경-남에서(①), 라지구 A구역 Test-pit(2) 토층-북에서(②), 라지구 B구역 전경-남에서(③), 라지구 B구역 Test-pit(1) 토층-남에서(④), 나지구 B구역 Test-pit(1) 전경-남에서(⑤), 나지구 B구역 Test-pit(2) 전경-서에서(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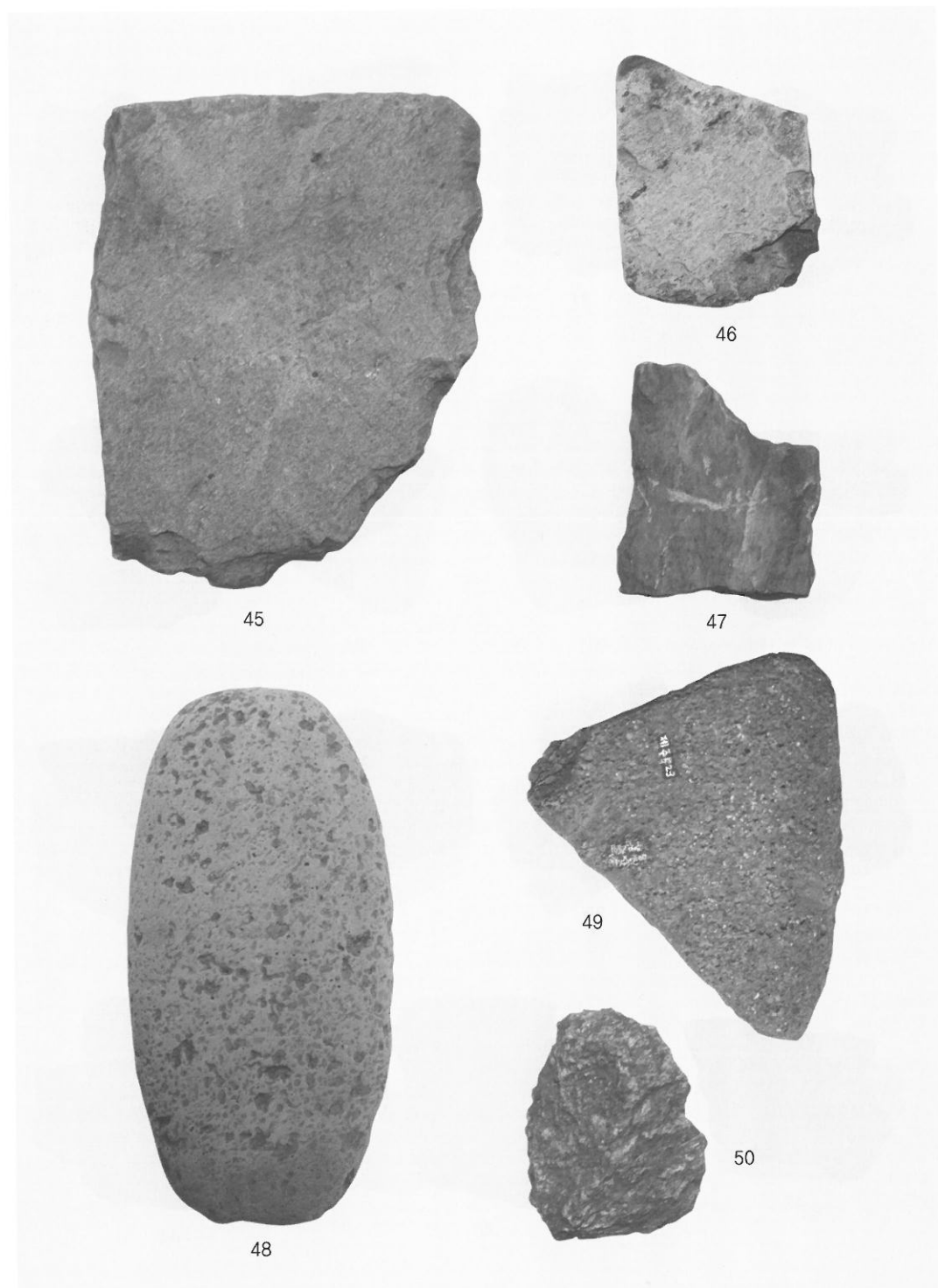
도판 5. 가-A-Tr1. 출토 유물(1~10), 지표 수습 유물(11~12)



도판 6. 지표 수습 유물(13~20), 가-A-Tr1. 출토 유물(21~23), 가-B-Tp3. 출토 유물(24~29)



도판 7. 가-C-Tp1. 출토 유물(30~35), 가-C-Tp3. 출토 유물(36~41), 가-C-Tp2. 출토 유물



도판 8. 지표 수습 유물(45~50)

성산~표선간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내
온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